

떠나려는 사람의 BGM(Background Memory)

글_주단단Z

단단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

● 차지량 작가님께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자유.”

언젠가 무심코 펼쳐든 잡지에서 당신은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근데 우습게도 그 대답에 대한 질문이 뭐였는진 기억나질 않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몇 주 뒤에, 정말 당신은 거짓말처럼 훌쩍 떠났어요. 떠나려는 당신에게 저는, 이대로 영영 돌아오지 않는 건 아니냐고 조심스레 물었었죠. 당신은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닐까,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투를, 표정을, 나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당신이 ‘신기했어요.’ 당신의 여행을 다른 사람들과의 여행과는 다른 것 같았어요. 뭔가, ‘자연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베를린에서 나는 스튜디오에 주로 머물렀고, 창밖을 보거나 자봉 위에 올라가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곳에서 시간은 여러 방향으로 흘러갔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떠올린 한 문장이 있었다. ‘떠나려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본다.’ - 차지량, <Good Morning : Good Night> 작가노트 중

당신이 떠나기 몇 주 전, 찾아갔던 당신의 전시엔 제가 한 번도 가 보지 못한 베를린의 풍경이 담겨 있었어요. 과거의 떠남의 기록들이었죠. 이십 분 남짓 되는 영상은 태어나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들로 가득했어요. 그 어두운 갤러리 안에서 나는 흐르는 시간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막연함을 느꼈습니다. 답답하고 서글퍼졌

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무엇을 보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나는 꽤 무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현장에서 개인이 감당해야 할 과도한 무게를 느끼며 지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무게를 느끼고 있었는데 말이지요. (...) 스스로에게 강박을 주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전염시키는 사람. 주변을 둘러보니 전부 아픈 사람들뿐이더군요. - 차지량, <BGM - Background Memory> 중

사실 그 막연함은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여행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 핸디캡은 어떤 식으로든 나의 일상과 관계들을 어그러뜨리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내게 당신은 ‘떠나려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보았던 모든 것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당신에게 또다른 떠남을 요구하고 있을 테지요. 그에 비해 나는 여전히, 컴퓨터 화면 안에 펼쳐진 베를린의 지도 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느 긴 산맥의 능선을 따라 마우스를 움직여보는 일밖엔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여행은 내게 무리인가 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나는 내 안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기어코 궁금해졌으니까요. 그 막연함이. 당신은 매번 주저하는 내게 ‘떠나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이대로라면 모든 것을 보지 못할까 불안해하는 나를 되려 달래줍니다.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떠나려는 사람이 모든 것을 본



차지량, 떠나려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본다 (영상캡처)

흐르는 시간 속에서 떠올린 한 문장이 있었다. '떠나려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본다.'
- Good Morning : Good Night 작가노트 중

다는 건,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어쩌면 당신의 '봄'은 통찰이 아닌 당신만의 자유일 것입니다.

나는 예술가로서, 때로는 관객으로서 좋은 작품을 발견했을 때, 소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 사람들과 함께 듣고 싶은 감정을 느낍니다. 나는 그런 순간을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순간을 쪼개어 나누어 갔다 보면 언젠가 모두의 기억에 좋은 것을 갖게 될까요? - 차지량, <BGM - Background Memory> 중

당신의 낭독회를 보았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거대

한 스크린 뒤에 본인의 모습을 감추고 나즈막한 목소리로 직접 쓴 글을 차분히 읽어 내려가던 그 순간, 암전된 실내에는 당신의 음악과 당신의 목소리만이 있었습니다. 스크린 속 개체들은 오히려 잔상으로만 남아 있어요. 우리의 감상은 아마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듯 싶습니다. 모두의 감상은 저마다 다르지만 그런 모두의 감상이 모여 완전한 작품이 되는 과정. 당신은 그런 과정을 하나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유토피아로 가는 길이겠지요. 차이가 존중받고, 다름이 인정되고, 고립으로부터 해독되는 세상. "어둠으로 사라지는 기억들, 사라지는 흔적들, 사라지는 공간들, 사라지는 사람들. 해가 지는 나의 스튜디오, 해가 지는 나의 동네, 해가 지는 내가 태어나도 자란 도시.



잠에 드는 나의 친구들, 잠 못 드는 친구들, 동료들, 동네 사람들. 나는 이들과 함께 어둠을 견디고 있어요” 이런 당신의 말처럼, 나 역시도 이 긴 어둠을 홀로 견디는 건 아닐 거예요. 이런 ‘견딤’은 아마도 견고한 안녕과도 같을 테죠.

길었던 추석 연휴의 끝자락, 짧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당신은 그 기록을 단 한 번의 퍼포먼스인 <고인 물> (2019, 줌 백 카메라전, SeMA 벙커) 을 통해 내게 들려주었습니다. 솔직히 당신이 낭독했던 긴 편지의 내용들 중

정확히 떠오르는 문장은 단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은 해석될 필요가 없으니까요.

어두운 전시장. 거대한 스크린엔 몬트리올의 어느 한 호수의 풍경을 찍은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죠. 물방울이 잠잠한 수면 위로 푹 푹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뒤이어 흘러나오던 당신이 만든 노래, 그리고 마침내 등장한 당신의 목소리. 그곳엔 독백을 이어 가는 한 사람과 그 독백의 순간을 몸짓으로 재현하는 한 사람, 그리고 그 모든 걸 지켜보는 ‘우리들’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호수 한가운데 떠 있는 위태로운 보트 대신 차가운 전시장 바닥에 앉아 있던 당신의 본신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내 당신이 드넓은 수면 위에서 느꼈을 그 고립감을 몸짓으로 우리에게 친절하고도 생생히 전해 주고 있었어요. 나는 그곳에서, 마치 호수라는 거대한 목적 속에 자신을 내던진 물의 입자처럼, 세상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입자에 지나지 않는, 기어코 그래야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참 슬프고 가여웠죠. 사실 그때를 떠올리면 시아엔 온통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어느 호수의 풍경들뿐인데다, 내내 뭔가 치밀어 오르려 하는 것을 억지로 누르려 애썼던 기억밖엔 안 나요. 함께 갔던 이에게 누가 될까 봐서요.

나는 아직도 그 순간을 추억하면, 그때 그곳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를 들으면 자꾸만, 물이 되는 꿈을 꾸니다. 그럼 부디 안녕하세요 2

또다른 기억의 장소에서 다시 뿔길 바라며,
주단단 올림.



내가 베를린으로 떠난다고 하자, 친구는 나에게 시계를 선물했다.
When I was leaving for Berlin, my friend gave me a clock.



차지량, Good Morning : Good Night (1층 전시전경), Space CAN, 서울
떠나려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본다



차지량, Good Morning : Good Night (2층 전시전경),
Space CAN, 서울
BGM Background Memory





차지량, BGM Background Memory (작품사진)

어둠으로 사라지는 기억들, 사라지는 흔적들, 사라지는 공간들, 사라지는 사람들.
해가 지는 나의 스튜디오, 해가 지는 나의 동네, 해가 지는 내가 태어나도 자란 도시.
잠에 드는 나의 친구들, 잠 못 드는 친구들, 동료들, 동네 사람들.
나는 이들과 함께 어둠을 견디고 있어요
- BGM Background Memory 중



차지량, BGM Background Memory (작품사진)



차지량, BGM Background Memory (퍼포먼스현장),
보안여관, 서울



차지량, 고인 물 (퍼포먼스현장), SeMA 병커, 서울



<고인 물>의 출발이
되었던 캐나다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한 호수

<고인 물>은 2019년 9월 14일, SeMA 뱅커에서 진행되었던 단 한 번의 퍼포먼스다. 결코 역행하지 않을 흐르는 물처럼, 이제 다신 볼 수 없을 그 현장에 대한 기억은 명확하진 않아도 여전히 아련하고 애뜻하게 남아 있다.

<고인 물>의 초대장





차지량, 떠나려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본다 (작품 이미지)

이 작품에서 작가는 자신이 머물렀던 타국의 스튜디오를 전시장에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관객들이 작가만의 고유한 기억의 장소에 더 깊숙히 침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처럼 작가는 다수의 작품에서 장소의 시각적 재현, 상념의 기록과 낭독을 통한 정서적 재현, 직접 쓴 배경음악을 통한 청각적 재현을 한 전시에 담아 다층적 체험을 유도하며, 더욱 작가의 기억과 밀접한 접촉을 가능하도록 만든다. 그의 퍼포먼스에 초대된 익명의 관객들은 자신의 의지로 타인의 경험 속에 참여하는 혼치않은 상황을 마주하며, 경험을 공유하는 독특한 경험을 획득한다.

차지량 (Cha Ji Ryang) 미디어를 활용한 참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시스템과 개인에 초점을 맞춘 주제별 현장을 개설하는 작업을 이어 왔다.
 <이동을 위한 회화>(2008), <Midnight Parade>(2010),
 <일시적 기업>(2011), <New Home>(2012), '한국 난민' 시리즈
 (2014-), 'BATS' 프로젝트(2016-), <BGM>(2018)을 전시와 공연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발표했다.